

사회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방송말의 '-ㄴ데요' 남발... '데요체'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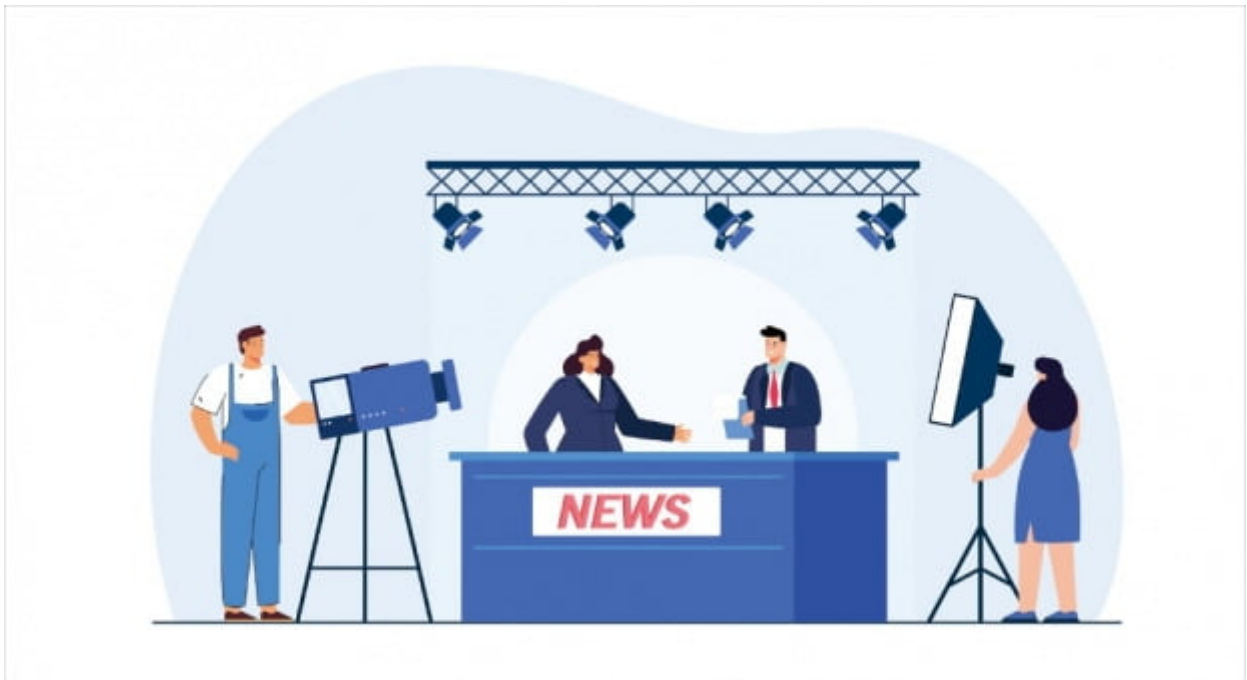
입력2022.08.22 10:00 | 수정2022.08.24 10:00 | 지면S18



가가

'-ㄴ데요'의 정체부터 알아보자. 이 말은 '-ㄴ데'에서 왔다. 이는 '해체'에 속하는 말이다.

"우리 오늘 만날까?" "나 지금 바빠" 같은 게 해체 표현이다. 여기에 존칭보조사 '-요'를 붙여 만든 게 해요체다.



Getty Images Bank

“‘케이-베네치아’라는 설명과 함께 올라온 영상인데요. 도로가 완전히 잠겨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인천지역 집중호우로 동인천역 인근 일부 도로가 침수됐다고 하네요. ... 서울의 복합쇼핑몰, 코엑스도 비 피해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면서 직원들이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수도권 곳곳이 물난리를 겪었다. 언론들은 피해 상황을 신속히 전하면서 응급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그중 한 방송사의 보도 문체는 좀 특이한 모습이였다. ‘-ㄴ데요’로 끝나는 문장들을 주목할 만하다. 짧은 기사에서 장면을 바꿔가며 ‘-ㄴ데요’를 아홉 번이나 반복했다.

의미 용법 지키지 않아 어색할 때 많아

이런 어투는 근래 방송 보도에서 자주 들을 수 있다. 마치 경어법상 새로운 ‘데요체’라도 나온 듯싶다. 일반 뉴스 문장에 익숙한 사람들에게겐 어법적으로 여전히 어색하다. 신문을 비롯해 방송 보도문은 전통적으로 ‘합쇼체(하십시오체)’를 중심으로 써왔기 때문이다. ‘-ㄴ데요’는 해요체에 속하지만 뉘앙스는 ‘-해요’와 많이 다르다. 문법 기능에도 차이가 있다.

우선 ‘-ㄴ데요’의 정체부터 알아보자. 이 말은 ‘-ㄴ데’에서 왔다. 이는 ‘해체’에 속하는 말이다. “우리 오늘 만날까?” “나 지금 바빠” 같은 게 해체 표현이다. 여기에 존칭보조사 ‘-요’를 붙여 만든 게 해요체다. 일반적인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연설이나 방송 보도에서는 이 해요체가 널리 쓰인다.

‘-ㄴ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 말은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두 가지로 쓰인다(<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연결어미로 쓸 때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기 위해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뒤 절의 내용이 대립하거나 인과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경치가 참 좋아” “그는 정직하기는 한데 이번 일엔 적합지 않다” 같은 게 그런 예다.



또 다른 쓰임새는 종결어미다. 이때는 의외의 사실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음을 감탄조로 나타내는 상황에서 쓰인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쁜데.” “생각보다는 집이 깨끗하고 조용한데.” 일상적인 입말에서는 이 용법으로 많이 쓴다.

방송 보도는 ‘합쇼체’ 쓰는 게 정통 어법

앞서의 방송 보도문에서는 왜 ‘-ㄴ데요’가 어색하게 느껴졌을까? 우선 ‘-ㄴ데요’로 나열된 부분은 형태상 연결어미가 아니라 종결어미로 쓴 것임이 드러난다. 그런데 내용상 ‘-ㄴ데’를 쓸 조건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감탄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써야 하는데 거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사전 용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의외의 사실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다. 집중호우 뒤 피해 상황을 전하는 장면은 의외의 일도 아니고, 감탄조로 쓸 상황도 아니다. ‘-ㄴ데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배경이다.

혹시 ‘-ㄴ데요’를 연결어미로 쓴 것인데 종결형으로 잘못 처리한 게 아닐까? 하지만 의미 용법이 달라져 이 역시 설명되지 않는다. ‘~영상인데, ~우려되고 있는데 ...’ 식으로 나열해 보면 비문임이 드러난다. 다만 두 번째 장면은 연결어미로 바꿀 수 있다. 즉 “코엑스도 ... 피하지 못했는데, ...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면서 직원들이 수습에 나섰다”가 돼 문장이 성립한다.



<저널리즘 글쓰기 10원칙>
저자·前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장

요즘 방송에서 흔히 쓰는 ‘-ㄴ데요’는 습관적으로 남발하는, 잘못 쓰는 말투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이들을 ‘-버니다’ 꼴, 즉 합쇼체로 쓰면 훨씬 자연스럽다.(“...영상입니다 ... 있습니다 ... 못했습니다.”) 이는 현재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종결어미다.

‘해요체’는 ‘해체’와 더불어 입말에서 아주 흔히 쓰는 말이다. 그만큼 친숙한 표현이다. 대신 격식을 갖춰야 하는 상황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또 편한 만큼 언어적 품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남발하면 글이 다소 가볍게 느껴진다. 해요체를 속칭 ‘유아체’라고 하는 까닭도 그런 속성 때문이다. 뭐든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좋아요

0



싫어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